

##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The commons in the modern city and the reproduction

권범철\*

본 연구는 역사상의 공유 토지에서부터 현대의 공통재에 이르는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에서 공통재가 어떻게 생산되고 이에 기초한 대안적인 삶의 재생산은 어떻게 가능한지 논의한다.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는 사회적 공장이 된 도시에서 비물질적 공통재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이들의 논의는, 공통재의 생산자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페데리치는 네그리와 하트의 비물질적 공통재가 재생산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상대적으로 물질적 기반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다. 스콧은 페데리치가 드는 주요한 사례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두 스콧의 사례에서 예술가들과 노숙인들은 자신들이 공통재의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도시권을 스스로 실현하고자 했다. 요컨대 네그리와 하트의 비물질적 공통재는 그 자체로 재생산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페데리치가 재생산을 위해 주장하는 ‘물질적 기반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권리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주요어: 공통재, 공통적인 것, 재생산, 도시권, 스콧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palcdall@hanmail.net)

공통재(communs)<sup>1)</sup>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다. 근대 이전의 공동 영유지를 지칭하던 이 용어가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가? 페데리치(2013b: 236)는 “한물간 것이 분명한 이 개념이” 현대 사회운동에서 중요하게 대두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주의적 혁명 모델이 종언을 고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형태의 생명과 지식을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시도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통재가 부각된다는 것은 공통재가 국가와 자본 양자에 대한 대안으로 사고됨을 의미한다. 즉 공통재는 무엇보다 공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은 사회적 장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공통재에 대한 관심의 부활이 과거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 삶의 중심인 도시에서 과거와 같은 자연자원 공유지를 찾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통재에 대한 관심의 부활이 단지 바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현대 도시에서 공통재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자본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오늘날 공통재라는 개념은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한 형태를 함축한다. 하트는 네그리와 함께 현대의 공통재를 역사상의 공유지와 구별하기 위해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지구, 그리고 지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자원들, 즉 토지, 삼림, 물, 공기, 광물 등”

1) commons는 일반적으로 공유지, 공유재, 공통재 등으로 옮겨진다. 네그리와 하트는 근대 이전의 공유지와 현대의 공유지를 구별하기 위해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commons라는 복수형에서 ‘-s’를 삭제한 이 용어는 물, 공기, 숲, 토지 등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 소통, 아이디어, 언어 등 비물질적 형태까지 포함한다. 본 글에서 commons는 이 두 가지, 즉 역사상의 공유지와 현대의 공유지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때문에 번역 상의 난점이 발생한다. 공유지라는 말이 국내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근대 이전 commons와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많이 언급되는 공유경제의 공유(sharing)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점은 공유재라는 역어 또한 지닌 문제다. 때문에 ‘공통적인 것’의 ‘공통’이라는 말과의 접점을 쌓기 위해 여기서는 공통재라는 역어를 사용하되, 역사상의 공유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공유지로 쓴다. 그러나 공통재라는 말 역시 commons를 어떤 재화로만 사고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역어의 문제는 추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언어, 정동 같은 인간 노동과 창조성의 결과물”까지 포괄한다(하트, 2012: 34). 공통재의 이러한 실존적 외연의 확대는 하트와 네그리뿐만 아니라 공통재를 다루는 많은 연구자들이 — 비록 강조점은 다르더라도 — 공유하는 것이다. 본 연구도 물질적·비물질적 공통재를 포괄하여 다루면서 그것이 삶의 재생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도시에서 사람들의 삶의 재생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한 복지국가의 해체는 한때 공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던 것들 — 교육, 의료, 물, 주거, 교통 등 — 을 빠르게 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한때 노동력을 양성하여 다시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공간,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던 대학은 직접적인 축적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민영화, 물 사유화 등과 함께 재생산을 위한 영역이 직접적인 축적의 지점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삶의 재생산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인 것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투쟁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공적인 것의 담지자로 여겨지는 국가 자체가 이미 자본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 역시 뚜렷하다. 따라서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아닌 공통적인 것의 구축은 재생산을 위한 대안적인 방식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도시에서 공통재의 논의가 중요한 것은 공통재가 현대 도시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대표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핵심적인 갈등은 집합적으로 생산된 공통재를 누가 차지하는가를 놓고 일어난다. 그 공통재를 누가 생산하며 어떻게 전유되는지, 즉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사적으로 전유되는 도시 공통재의 메커니즘을 살피지 않는다면 사회적 생산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없다. 이처럼 도시 공통재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도시 사회운동에서 주목받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이하 도시권)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up>2)</sup>

또한 도시 공통제에 대한 논의가 도시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도시 공통제의 구축은 그 권리의 직접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공통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공통제를 다룬 책들이 출간되고 연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이론가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공통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연자원 공통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도시 공통제에 대한 연구가 최근 출현하고 있다. 이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한윤애(2016)는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사건을 사례로 저항이 생성하는 공통제를 다룬다. 이 연구는 내쫓길 위협에 처한 카페리는 공간을 기반으로 예술가,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공통제를 보여준다. 황진태(2016)는 도시 공통제를 동아시아 발전주의 도시화의 맥락 속에서 개념화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촌락에 산포된 전통 공통제(자연자원 공통제)를 행성적 도시화의 흐름 속에 위치시켜 ‘촌락의 자연 공통제의 도시화’라는 측면에서 볼 것을 제안한다. 즉 행성적 도시화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자연자원 공유제를 도시 공유재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신지은(2013)은 홈리스들의 공동체, 프리건(freegan)들의 쓰레기 전유가 도시에서 공통적인 것을 재구축하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버려진 것들을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상호부조하는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한다. 이 세 연구는 사회적 실천이나 투쟁, 공동체 활동이 기존의 자원을 공통재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공통재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도시 공통제를 사고할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주어지는’ 자원이

2) 데이비드 하비도 공통제와 도시권의 연결을 언급한다. 그는 하트와 네그리의 논의를 가져와 사회적 노동자들이 생산한 공통제 자체를 도시로 설정하면서 공통제=도시를 사용할 권리는 그것을 생산한 사회적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하비, 2014: 145~146).

아니라 생산되는 영역으로서의 공통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지만, 좀 더 이론적 측면에 집중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역사상의 공유지부터 오늘날의 공통재를 다루는 여러 논의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뒤, 그것에 기초하여 현대 도시에서 공통재가 어떻게 생산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공통재에 기초한 대안적인 삶의 재생산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한다.

## 1. 근대 이전의 공유지

공통재[공유지]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이다. 중세 영국 재산법에서 공유지는 일단의 법적으로 인정된 ‘자산’ — 목초지, 어장, 숲, 토탄지 — 을 가리켰다. 이것은 뚜렷한 물질적 형태를 지닌 자연자원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물질적 형태라기보다는 그것들이 사용된 방식이다. 숲이나 토지는 보통 영주가 소유했지만 그곳을 사용하는 이들은 공통인들(commoners)<sup>3)</sup>이었다. 이들은 이 자원들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그것의 사용을 관리했다(Caffentzis, 2016). 이러한 공유지는 “소농과 소작인의 재생산에 필수적이었다. 그들은 소를 풀어놓을 목초지가 있었기에, 목재를 모으고 딸기와 약초를 딸 숲이 있었기에, 채석장과 양어지가 있었기에, 그리고 회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었기에 겨우 살아나갈 수 있었다.” 또한 “공유지는 농민들이 서로 연

3) commoner는 일반적으로 평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평민에 한정되기보다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사람, 공통하기의 실천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네그리와 하트는 『선언』에서 공통인을 이렇게 정의한다. “공통인들은 단지 그들이 노동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만 공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게는, 공통적인 것 위에서 노동하기 때문에 공통하다. …… 빵 굽는 사람이 빵을 굽고, 옷감 짜는 사람이 옷감을 짜고, 방아 돌리는 사람이 방아를 돌리는 것과 똑같이, 공통인은 “공통한다(communs).” 즉 공통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다”(하트·네그리, 2012: 163).

대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였다. 농민 공동체의 축제, 놀이, 모임은 모두 공유지에서 이루어졌다”(페데리치, 2013: 114~115). 이처럼 18세기만 해도 잉글랜드의 들판은 대체로 개방되어 있었고 자작농, 아이들, 여성들이 공통하기(commoning)<sup>4)</sup>를 통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쇠나 플라스틱이 아닌 나무가 물질문화를 구축하던 시대에 공유지는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었다. 숲은 난방과 조명, 건축자재, 신발, 쟁기손잡이 등 다양한 재료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제공함으로써, 자급농업의 토대를 제공해 준 에너지원의 보고이자 ‘민중의 안전망’이었다. 또한 사유화되지 않은 황지(荒地)는 사회적 보장으로 기능했다. 황지는 방목권이 없는 사람들을 공통인으로 만들었고, 유용한 산물을 주었으며, 다른 공통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을 주었다. 즉 황지를 거점으로 한 공통인들의 교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Neeson, J. M., 1993; 라인보우, 2012: 82에서 재인용).

이들이 이런 관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로서 획득했기 때문이었다. 역사가 라인보우는 『마그나카르타 선언』에서 13세기 영국에서 존 왕에게 강요된 두 개의 헌장에 대해 말한다. 하나는 대헌장으로 알려진 정치적·사법적 권리에 대한 헌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생존을 다룬 삼림헌장이다. 이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삼림헌장의 1조는 목초지를 ‘관습적으로’ 사용해왔던 사람들에게 목초지를 공유지로서 보존해 주었다. … 9조는 자유민들에게 숲을 개방하고 돼지 방목권을 제공했다. 13조는 모든 자유민들이 꿀을 채취할 수 있게 정하였다”(라인보우, 2012: 72). 이러한 권리를 왕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유지를 지키고자 한 민중들의 방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공유지는 ‘생산되었다’. 즉 공유지는 그것이 자연 자원 형태로 존재할 때에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었다.

요컨대 공통제는 단순히 공유하는 자원만이 아니며 주어져 있는 것도

4) 공통하기(commoning)란 공통적 관계에 기반을 둔 활동을 의미한다. common의 다양한 품사 활용에 대해서는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난장, 2012)의 13~14쪽을 참고할 것.

아니다. “공통재는 사회적 관계인 동시에 물질적 사물”(라인보우, 2012: 22)이며 투쟁을 통해 생산된다. 즉 공통재는 생산과 재생산이 분리되기 이전 공동체가 집합적으로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던 자원이자 그 방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맛시모 데 안젤리스는 공용 자원, 공동체, 공통하기를 공통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한다. “첫째 모든 공통재는 어떤 형태의 공통의 공용 자원을 수반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비상품화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공통재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된다. … 공동체는 이 자원을 공유하고 자원의 접근과 사용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규정하는 공통인들의 집합이다. … 이 두 가지 요소에 덧붙여 공통재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공통하기’라는 동사다. 이것은 공통재를 창출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과정이다”(De Angelis, 2010).

이러한 정의에 기대 중세 영국의 숲 공통재를 다시 살펴보자. 첫째 공용 자원의 경우, 주민들은 숲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화폐를 지불하지 않고 숲에 있는 나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난방을 위한 연료나 먹을거리, 약초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숲 지대는 연료의 저장고였다. 또한 맛있는 먹을 것들이 있는 식품저장고였으며 약초와 치료약이 든 약상자였다”(라인보우, 2012: 73). 그러므로 숲의 나무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비상품화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요소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자원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운영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통재는 누구나 내키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코크는 삼림에서의 ‘드리프트’ 즉 가축 한테 모으기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로, 공통하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규정되거나 허가된 종류의 가축으로 공통하기를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둘째로, 만일 가축의 종류가 합당하다면, 정해진 수보다 많은 가축을 들여왔는지 아닌지 확인한다. 셋

짜로, 공통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낯선 사람의 가축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확인한다”(라인보우, 2012: 112~113).

이러한 사례는 공유지가 적절한 관습과 규칙에 의해 관리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딘은 1968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에서 공유지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논증했다. 그의 사고 실험에 따르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목동은 자신의 소를 공유지에 가능한 많이 풀어놓음으로써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목동도 유사하게 행동할 것이므로 목초지는 과도하게 방목될 것이고 결국 파괴된다는 것이다(Hardin, 1968). 그러나 사고 실험이 아닌 실제 공유지의 작동 과정을 연구한 오스트롬(2010)은 이러한 개방 접근 상황이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많은 현장 연구를 통해 공동체들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관리해 나가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셋째, 동사 ‘공통하기’는 공통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공통재는 그것이 가진 어떤 특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집합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재가 된다. 이 공통하기는 숲이 제공하는 자원을 협력해서 사용·관리하는 행위뿐 아니라 공통재를 사유화하기 위해 숲에 두른 (문자 그대로의 혹은 비유적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통권(common right) 자체가 공통인과 지주 간의 오랜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통하기는 ‘집단적’이다. 즉 공통재는 공동체의 집합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재화이자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 2. 제3영역으로서의 공통재

공통재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불리어(2015: 40)는 데 안젤리스와 유사하게 공통재를 “자원+공동체+일련의 사회적 규약”으로 정의한다. 데 안



젤리스가 공동체를 공용 자원, 규약을 스스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화의 과정으로 정의했다면 볼리어의 정의는 규약과 공동체를 따로 떼어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역시 공동체화를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45)으로 본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국가 및 시장과 맺는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둘 사이의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볼리어의 논의를 살펴보자.

볼리어는 공용 자원과 공동체를 구별한다. 공용 자원은 “자원이되 공동인이 관리하지 않는 자원이다”(207). 즉 공용 자원은 공동체가 공동으로 관리해야만 공동체가 된다. 이런 점에서 그는 하딘이 제시한 가상의 시나리오 속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진입이 개방된 열린 접근, 즉 오픈 액세스 체제, 혹은 자유이용 체제다. 공동체에는 경계, 규율, 사회적 규범, 무임승차에 대한 규제가 있다. 공동체는 자원을 지키는 양심 있는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존재를 필요조건으로 한다”(51). 그러므로 하딘은 공동체를 “주인 없는 땅”으로 혼동했다는 것이다.

볼리어가 말하는 공동체는 자원의 집합적 관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잘 살기’(living well)를 위한 패러다임이나 좀 더 넓게 보면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동체까지 아우른다. 그가 바라보는 공동체의 범주에는 물·삼림·에너지·경작지 같은 전통적인 자급 공동체부터 원주민들의 문화·전통지식을 포함하는 원주민 공동체, 지역 화폐·혈액 및 장기 기증 시스템·학문 연구·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 공동체뿐 아니라 지각과 존재 방식으로서의 공동체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범주의 공동체들을 통해 그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집합적 주체와 사회적 상호주의의 시스템이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러한 상호성에 기초한 시스템이 자원을 관리하고 지식을 축적하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적으로 작동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자유주의 정치 시스템은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공동체가 보여 주는 집합적 가치를 인정하거

나 알아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용을 위해 공통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진다. 이 공격, 즉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의 ‘시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공격으로서,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공유된, 장기적이고 비시장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체로서가 아닌 철저히 개인으로, 소비자로서”(73) 전환된다. 그럼에도 공통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볼리어는 독일의 이론생물학자 안드레아스 베버의 말을 빌어, 공통재가 “세포 물질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216)이라고 말한다. 즉 삶은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만 가능하며 그러한 사회적 관계가 바로 공통재를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통재는 정적인 명사가 아니라 동적인 동사다”(250).

삶의 방식으로서의 공통재를 이야기하는 그의 논의는 단순히 자원 관리 수준을 벗어나서 현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아간다. 즉 공통재 기반 모델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단순한 정책 메커니즘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발전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탐구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231). 이런 점에서 국가와 시장 그리고 공통재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진다. 그는 미셸 바웬스의 논의를 빌어 “국가와 시장이 양분하고 있던 거버넌스 권한을 공통재와 함께 나누는, 시장/국가/공통재의 삼두체제”(212)를 제안한다. 이 삼두체제란 무엇인가?

바웬스는 현재의 “인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과 비즈니스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적 영역은 제1부문이며 국가는 사적 영역의 자본 축적 과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시민이 주권자이지만 실제로는 시민사회와 국가가 모두 사적 영역의 지배하에 있다고 주장한다. 공통재의 경우, 산업 자본주의를 거치며 자연자원 공통재는 거의 사라졌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만이 남았지만 두 가지 변수 때문에 다시 공통재가 부상하고 있다. 환경 위기와 디지털 공통재가 그것이다.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적 기업이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의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구의 존립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고, 국가 소유 경제나 중앙집권적 계획이 대안으로서의 매력 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 실제 작동 과정에서 환경과 공존해왔던 — 자연 자원 공통재라는 사고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협력으로 지식, 문화, 소프트웨어, 디자인 공통재를 창조하는 경험이 공 통재라는 사고를 재도입했다. 이 경험이 물리적 공통재를 재상상하고 창 출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논 의에 따르면 현재 국가와 시장이 양분하고 있는 체제에 공통재가 다시 제3의 영역으로 부상한다. 그는 이것을 “새로운 삼두체제”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면 — 이행의 단계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 이 새로운 삼두체 제에서 국가와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기능을 한다. 먼저 기업 은 공통재에서 자원을 임대하여 활동하며 그 이윤은 공통재의 유지와 조 화를 이루는 방향에 포섭된다. 그리고 국가의 경우 우선 공통재 기관들 이 대부분의 기능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능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각 공 통재 기관들이 자신의 공통재만을 주로 돌보기 때문에 국가는 전체 시스 템의 보증인으로, 다양한 공통재를 규제하고 공통인을 보호하는 권위로 남는다. 바웬스는 이러한 “새로운 P2P 국가는 지금의 국가가 사적 영역 에 포섭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재에 포섭되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Bauwens, 2010).

볼리어(2015)가 국가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 유사하다. 그는 “사실상 모든 공통재는 어느 정도는 국가나 시장에 의존하는 이중적인 존재”(202)라고 본다. 그는 공동체 지원 농업과 지역농 시장, 협동조합, 슬로푸드 운동 등을 예로 들어 “시장도 공동체에 충분히 녹아들고 공동 체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다한다면, 완전히 지역에 융합된, 공정하고 공 동체 필요에 부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2). 그러면서도 공통재가 스스로 자기방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원에 전용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즉 그가 말하는 시장은 공통재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산하는 모델로서의 시장이다. 한편 국가의 경우 규모가 너무 큰 공용 자원의 관

리를 위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또한 “공통재 기반 활동을 허가하고 지원하도록”(232) 역할이 재설정된다. 그가 생각하는 모델은 “공통재의 형성과 지킴에 봉사”하는, 시장이 아닌 공통재 영역의 “파트너 국가”다.

볼리어는 이처럼 공통재를 단순히 자원 관리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는다. 그에게 공통재는 하나의 ‘세계관’이자 ‘패러다임’으로서 현재의 국가/시장 체계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그와 함께 시장과 국가가 공통재에 이로운 형태로, 또한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3. 반자본주의적 공통재

볼리어의 공통재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물론 국가와 시장이 공통재를 지원하는 형태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좀 더 급진적인 입장에서 있는 이론가들은 공통재를 비자본주의 사회의 배아로서 바라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 데 안젤리스, 네그리와 하트, 페데리치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공통재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차이를 살펴본다.

#### 1) 자본의 ‘외부’로서의 공통재

데 안젤리스는 공통재를 자본의 ‘외부’로 바라본다(De Angelis, 2007). 다시 말해서 그에게 공통재란 “물질적·사회적 삶이 자본 외부에서 재생산되는 대안적 영역”(32)이다. 그렇다면 이 외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는 외부를 다루는 기존의 입장들 — 볼페(Harold Wolpe), 하트와 네그리, 하비 — 을 검토하면서 이들에게 외부란 자본주의 이전에 존재했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종말을 맞이했거나, 또는 진행 중인 강탈에 의해 종말로 향하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한다. 즉 이들에게 외부는 (유

사) 종말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입장들이, 투쟁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외부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230~232). 그는 볼리어처럼 인클로저가 자본주의의 ‘시초’에만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동체화의 과정 역시 영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P2P 생산이나 사회 센터의 활동들,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물, 전기, 토지, 사회적 부에 대한 접근, 삶과 존엄을 위한 무수히 많은 공동체 투쟁들”(227)을 예로 들면서, 이 투쟁들이 낳는 행위 그리고 관계 맺기의 양식과 가치들이 자본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는 존재한다. 공동체는 바로 이 과정에서 자본의 그것과는 다른 가치 실천을 행하면서 구성된다.

볼리어가 시장/국가/공동체의 삼두체제를 주장했다면, 데 안젤리스는 “국가나 시장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자기 관리와 자기 통치”를 주장한다(De Angelis, 2010, 강조는 인용자의 것). 그러나 그럼에도 둘 사이의 견해가 대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볼리어의 삼두체제는 데 안젤리스가 주장하는 ‘국가나 시장을 넘어서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역사의 시작』의 마지막 부분에서 데 안젤리스는 아나키즘과 코뮤니즘 그리고 사회주의를 간략하게 정의하면서 그 관계를 서술한다. 그에 따르면 아나키즘은 “반권위주의에 관한 것”이고, 코뮤니즘은 “자치의 실천, 공동 생산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의 외부 되기”를 구성하며, 사회주의는 “예를 들면 차베스[가 보여 주듯이]”, “국가를 통해 자본주의를 통치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De Angelis, 2007: 245).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코뮤니즘적 실천이 없는 아나키즘적 실천은 개인주의적이거나 계도화된다. 아나키즘 없는 코뮤니즘은 위계적이고 억압적이다. 사회주의 없는, 즉 국가 내에서/에 대항하여/를 넘어서는 투쟁이 없는 아나키즘과 코뮤니즘은 판타지다(245).

따라서 “자본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에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대립된다 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 “전투”는 “국가 내에서(사회주의), 국가에 대항하여(아나키즘), 국가를 넘어서(코뮤니즘) 투쟁하는 법을 찾아야만 한다”(246). 코뮤니즘을 “공통인들이 생성하는 영역”(246)으로 정의하는 그에게 분명 방점은 코뮤니즘에 찍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한 것처럼 공통재를 지원하는 형태로 국가를 재편하는 문제에는 안젤리스에게도 ‘국가 내에서의 투쟁’(사회주의)으로서 중요한 계기로 설정된다.

한편 그는 코뮤니즘이 “우리의 외부 되기”라고 말한다(245). “우리의 외부 되기”란 “자본과 다른 것이 되기”를 뜻한다(229, 강조는 원저자의 것). 그렇다면 이 “우리”는 누구인가? 공통재에 대한 그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어떤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형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데 안젤리스에게 공동체는 어떤 동질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집단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로 연결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개인들의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공통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절합될 수 있는가”(De Angelis, 2010, 강조는 저자의 것)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즉 공동체의 형성이 어려운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상정될 수 없으며, 오직 구성될 수 있을 뿐”(ibid)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미리 ‘상정’하며 “노동계급”, “다중(multitude)”<sup>5)</sup> 등으로 변화의 주체를 명명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는 자본에 의한 착취라는 ‘객관

5) 다중은 주지하다시피 스피노자의 몰티투도(multitudo)에서 나온 개념이다. 스피노자에게 몰티투도는 “공적인 무대에서, 집단적 행동에서, 공동체의 사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un Un)로 수렴되지 않은 채, 운동의 구심적인 형태 내부에서 소멸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존속되는 다원성을 가리킨다. 다중이란 다수로서의 다수의 사회적·정치적 실존 형태이다”(비르노, 2004: 38, 강조는 원저자의 것). 네그리와 하트는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특이성들이 공통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상호작용하며 그 상호작용이 다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다중은 이 특이성과 공통성의 동학에서 출현하는 주체성이다(하트·네그리, 2008: 270).

적인' 조건으로 노동계급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노동계급이라는 주체는 객관적인 조건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계급이 있어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하면서 노동계급이 생겨난다.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나 임금 인상 같은 공통의 이해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계급 자체가 권력에 의해 파편화되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북구 노동자와 남구 노동자 등의 분할에서 이들은 모두 노동계급일 수 있지만 그들의 이해관계는 상호 배타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때문에 그는 변화의 주체를 명명하는 대신 그러한 주체 내부에서 구조화된 분할을 극복하는 것이 공통하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통재의 확장을 통한 자본의 극복이라는 그의 과제는 선행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그것은 바로 공통재에 상응하는 공동체의 구성, 다시 말해서 주체 내 분할의 극복을 통한 공통의 이해관계의 구성이다. 이것은 장소 혹은 맥락 특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없다. 따라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실천적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된다.

## 2) 삶정치적 생산의 중심으로서의 공통적인 것

자율주의 운동의 핵심 이론가인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재(communs) 대신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공통재[공유제가 앞서 다룬 바 있는 과거의 공유 토지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공통적인 것이라는 용어로 과거의 뜻을 포괄하면서도 비물질 노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변화된 자본주의에서의 새로운 의미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들에 따르면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것도 아니고 공적인 것도 아니”며, “개방적 접근과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 및 자주관리로 정의되는 부의 한 형태(혹은 부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공통적인 것은 한편으로 사적 소유의 지배와 신자유주의적 전략들에 대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소유의 지배, 즉 국가의 통제와 규제에 대립한다”(하트·네그리, 2014: 10). 이렇게만 보면 이들의 정의는 앞서 살펴본 공통재에 대한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방적 접근, 집단적 결정, 자주 관리는 공통재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정의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의하는 공통적인 것의 차별성은 비물질적 생산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공통적인 것의 두 유형을 구분하는 데, 한편으로 공통적인 것은 “물질적 세계의 공통적 부—공기, 물, 땅의 결실을 비롯한 자연이 주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것들—지식, 언어, 코드, 정보, 정동 등—”을 가리킨다(16). 이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앞서 살펴본 물질적 재화로서의 공통재와 비물질적인 공통재를 포괄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분명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트와 네그리는 산업이 더 이상 경제에서 헤게모니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비물질적 생산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산업 생산이 양적인 측면에서 우세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즉, 아이디어, 정보, 이미지, 지식, 코드, 언어, 사회적 관계, 정동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비물질적 생산의 특질이 다른 경제 부문과 사회 전체에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하트, 2012).

비물질적 생산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비물질적 결과물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수업을 하는 교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변호사,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웨이트리스... 이들은 분명 노동을 하지만 그 결과물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엇이다. 이들은 상품을 생산한다기보다 사회적 관계와 삶형태를 그 결과물로 생산한다. 즉 이들의 노동은 삶 자체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삶정치적(biopolitic)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오늘날 경제적 생산이 이행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점점 삶정치적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삶정치적 생산의



특징은 자본이 생산적 협력을 조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 생산 시대에 자본가는 토지를 구매하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배치하고 노동력을 고용하여 생산적 협력을 조직한다. 그러나 “지식·소통·정동과 연관되는 협력수단은 일반적으로 생산적 마주침들 자체에서 창출되며 외부로부터의 지시를 통해 주어질 수 없다”(하트·네그리, 2014: 209). 예를 들어 리눅스 같은 OS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개발자들의 협력으로 생산되었다. 이 협력은 누군가가 조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의 자율적인 마주침으로 형성된 것이다. 생산적 협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자본은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그 외부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은 생산과정의 외부에서 그 협력을 수탈한다. “이렇듯 자본은 자본의 외부에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는 가치를 삶정치적 착취를 통해 포획하고 수탈한다”(209). 이러한 착취 과정의 변화는 삶정치적 생산에서 달라진 노동의 성격과 지배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수탈의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비물질적 결과물들은 희소성 원리를 벗어난다. 예를 들어 물리적 재화인 토지의 경우 누군가 어떤 곳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그곳을 사용할 수 없다. 즉 물질 상품은 한정되어 있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지식은 다른 이와 공유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지식은 공유할수록 더욱 풍부해지는 속성이 있다. 즉 비물질적 결과물들은 공통적으로 되는 경향을 지닌다. 자본은 이러한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동원한다. 지식, 음악, 영화 등 문화적 자산에 부여되는 지적재산권이 대표적이다. 지적재산권은 그러한 재화에 대한 접근에 장벽을 세운다. 여기서 삶정치적 생산에서 자본이 가진 모순이 드러난다. 지식이나 음악의 생산성이 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보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문의 발전이 누구나 기존의 성과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널리 공유할 때만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즉 노동 생산물이 공통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때야만 최대한의 생산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자본이 공통적인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는 그것은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생산성에 족쇄를 채운다. 요컨대 “삶정치적 생산은 기존의 공통적인 것이 새로운 공통적인 것을 낳고 이것이 다시 확대된 생산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 과정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의 구획과 수탈은 불가피하게 이 선순환을 파괴하며, 그럼으로써 자본은 점점 더 삶정치적 생산에 족쇄가 된다”(216).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통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삶정치적 생산에서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자본의 축적은 여전히 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을 위해 자본은 “다중의 힘과 자원을 점점 더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자본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러한 힘의 축적이 어떤 문턱을 넘을 때, 다중은 공통의 부를 자율적으로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출현할 것”이라고 하트와 네그리는 주장한다(428).

### 3) 집합적 재생산의 장으로서의 공통재

페미니스트 연구자 페데리치는 공통재를 재생산의 집합적 재구성을 통해 구현되는 “대안적인 생산양식의 씨앗”으로 이해한다(Caffentzis & Federici, 2013). 그녀가 공통재에서 특히 강조하는 지점은 우리의 삶을 재생산하는 문제다. 실제로 그녀는 “노동의 자본주의적 조직방식과 변혁양자 모두에 대해 ‘재생산’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페데리치, 2013b: 6). 주지하다시피 혁명 담론의 오랜 관심사는 ‘생산’에 있었고 생산의 중심지인 공장은 자본주의적 조직의 거점인 동시에 적대의 중심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왜 생산이 아니라 재생산인가?

페데리치(2013b: 165)에 따르면 “혁명의 걸림돌은 기술적인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노동계급 사이에 조장되는 분열”이다. 성차별은 이 분열의 대표적인 형태다. 성차별은 단순히 허위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부불가사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노동계급을 규제하고 분할하는 방식이다. “자본주의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막대한 부불

가사노동에 의존해야 하지만, 동시에 노동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런 재생산 활동을 평가절하해야”(163)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마치 여성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만든다. 달라 코스타는 가사노동이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것이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따라서 자본 축적의 바로 그 과정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Dalla Costa, 1975; Federici, 2016a에서 재인용). 그러나 페테리치(2013b: 165)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재생산노동을 노동자의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소비와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생산노동 문제를 가볍게 넘기고 말았다.” 그녀는 재생산 문제를 살피지 않는다면, 노동력이란 상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자본은 어떻게 이 과정을 ‘사랑’, ‘희생’ 등의 추상적 언어로 포장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자본축적에 기여하고 있는지, 거꾸로 말하면 자본이 부불가사노동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자본은 성차별을 통해 여성이라는 특수한 노동자를 생산함으로써 존속하고 있기에, 여성들이 대부분 수행하는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조직 방식과 변혁 양자 모두에서 중심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은 생산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조직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본이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에 기대고 있는 만큼, 그 재생산 노동을 다르게 — 자본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 재구성한다면 “대안적인 생산양식”을 향한 길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혁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실제로 그녀의 관심사는 “재생산 노동을 우리의 투쟁의 재생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있다(Federici, 2016b). 페테리치가 재생산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재생산의 중심적 위치를 밝힌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캠페인>과 같은 여성들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1960, 1970년대 투쟁 이후 나타난 세계경제의 재구조화는 특히 여성들에게 파국을 몰고 왔다. “노동과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기업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구화는 이를 위해 모든 생존수단을 박탈해야 했고, “사회적 재생산의 물질 조건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노동의 주요 주체인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페데리치, 2013b: 154)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연자원(토지, 물, 삼림)의 비자본주의적 이용과 자급지향적인 농업을 지키는데 앞장서며 공통재의 파괴를 저지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을 앞장세운 자본의 세계화는 토지와 일거리, 관습권에서 유리시키는 전 지구적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수백만 명을 화폐 수입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국가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보건, 교육, 연금,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모두 삭감되고 높은 요금이 부과되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재생산비용을 떠안게 되자 노동력 재생산의 모든 절합 지점은 직접적인 축적 지점으로 바뀌었다(178~179).

때문에 페데리치의 주장은 직접적인 축적 지점이 된 이 재생산 영역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것으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자본과 시장의 논리 밖에서 재생산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의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재생산을 둘러싼 집합적 투쟁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다”(193). “그 어떤 운동도 참여자의 재생산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지 않으면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이다(194). 이 재생산을 둘러싼 문제에서 공통재가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다. 공통재가 재생산을 위한 기반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그녀가 주장하는 반자본주의적 공통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재생산의 조건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공유와 평등한 접근에 기초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자율적 공간”(Caffentzis & Federici, 2013)으로 가장 잘 표현된다. 그녀는 공통재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공통재가 “집합적 노동에 의해 우리의 삶의 재생산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ibid). 이에 따라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 공간뿐 아니라 수자원 시스템, 토지, 숲, 해변 같은 물질적 형태의 공통

제가 강조된다. 비물질적 공통재에 대한 배타적인 의존은 삶의 재생산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녀는 네그리와 하트와는 달리 토지와 같은 물질적 기반에 대한 접근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자원의 공통화는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세계시장을 매개로 빼앗은 상품흐름과 우리의 재생산 활동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페데리치, 2013b: 245).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집합적 주체의 창출에 대한 것이다. 페데리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재생산 노동의 고립된 조건에서 탈피하여, 공통재를 통해 재생산 노동을 집합적으로 재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그녀의 핵심 과제라고 할 때, 이것이 집합적 과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공통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자원을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공유하는 실천이 아니라, 집합적 혹은 복수의 집합적 주체들의 창출에 대한 책임”이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조성할 책임”이다(Caffentzis & Federici, 2013). 요컨대 공통재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면서 창출되는 집합적 주체들의 협력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이러한 페데리치의 주장은 데 안젤리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페데리치는 공통재가 지닌 재생산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며 이런 맥락에서 공통재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강조한다. 여성이 역사적으로나 지금에도 여전히 재생산노동의 주요 주체로서 공통재에 더 의존해왔고 그것을 수호하는 데에서도 주요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페데리치, 2013b: 243).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데 안젤리스는 사회적 부, 삶과 존엄을 위한 무수한 투쟁들이 자본과는 다른 관계 맺기의 양식과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자본의 ‘외부’, 즉 공통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주체 내부에서 구조화된 분할의 극복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다. 페데리치 역시 이와 비슷하게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을 “혁명의 걸림돌”로 상정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합적 주체의 창출을 공통재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다. 그러나 그녀는 상대적으로 공통

계를 통한 일상적 삶의 재생산을 더욱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테리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 서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재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집합적 재생산을 꾸려왔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에 맞서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주목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삶정치적 생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착취와 지배의 양상을 그린다. 그들은 자본의 사적인 성격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인 것의 생산성에 족쇄를 채우고 모순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중의 자율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새로운 생산양식을 전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들의 논의는 비슷한 지향을 공유하면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데, 데 안젤리스는 네그리와 하트가 비물질노동의 특징 자체로부터 코뮤니즘으로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마치 그 과정이 자동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비판한다. 실천적 투쟁의 문제를 경향의 문제로 환원해버렸고, 그런 탓에 다중 내의 분할을 문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De Angelis, 2007: 168~169). 이러한 비판은 일리가 있다. 실제로 네그리와 하트의 저술에서 비물질노동으로부터 코뮤니즘으로의 이행이 경향적으로 서술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중이,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주체, 차이로 남아 있는 차이”(하트·네그리, 2008: 147)를 뜻하는 특이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통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그것의 경험적 기반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마르크스 계급이론의 경험적 주장은 단일한 노동의 계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말이다. 이 주장은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속에서 노동의 투쟁들을 통일시키자는 정치적 제안이다(154). 네그리와 하트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정치적 기획을 다시 제시한다. 다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조건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다중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중 개념과 그 정치적 기획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동유형들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

통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비물질노동이 그 경험적 기반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물질노동의 생산물들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회적이며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데 안젤리스가 다중 내의 분할을 강조하면서 ‘우리’ 되기를 구성의 문제로 강조했다면, 네그리와 하트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조건, 가능성을 더 강조했다. 이것은 주안점의 차이일 뿐 뚜렷하게 대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공통되기의 조건에 대한 강조가 구성의 문제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페데리치(2013b: 242~243)는 네그리와 하트가 지식, 정보 등 비물질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재생산 문제를 피해간다고 비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페데리치는 이런 맥락에서 물질적 기반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고 도시 텃밭 같은 자급 실천에 주목한다. 네그리와 하트가 비물질노동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의 논의는 현대 도시에서 공통재의 생산과 전유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 준다. 다음 절에서 도시 공통재의 문제를 다루면서 페데리치의 문제의식도 함께 검토해 보자.

#### 4. 결론: 도시와 공통재 그리고 재생산

마리오 트론티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발달의 최고 수준에서 사회적 관계는 생산 관계의 계기로 전환되며, 사회 전체는 생산의 절함으로 된다. 즉 사회 전체가 공장의 한 기능으로 살아가며 공장은 자신의 배타적 지배를 사회 전체로 확장한다”(Tronti, 1966, 강조는 원저자의 것). 이런 의미에서 그는 노동계급이 일하는 ‘공장’은 사회 전체, 즉 사회적 공장(social factory)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공장을 앞서 이야기한 삶정치적 생산의 무대로 그려 볼 수 있다. 삶정치적 노동에서는 생산 시간과 여가 시간(삶 시간)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삶 그 자체가 생산의 계기로

되기 때문이다. “생산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이디어나 관계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노동시간은 삶의 전체 시간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하트·네그리, 2008: 162). 따라서 여러 삶의 형태가 교차하는 사회 자체가, 그리고 오늘날 도시적 삶이 사회적 삶을 대변한다고 볼 때 도시 그 자체가 오늘날의 공장이 된다.

네그리와 하트(2014: 350~351)는 “메트로폴리스와 다중의 관계는 공장과 산업노동계급의 관계와 같다”고 비교하면서 “메트로폴리스는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이 공통적인 것/공통재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들은 도시 부동산 경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도시의 공통재를 인식하는 유용한 렌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227~228). 도시에서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는 거의 전적으로 외부성에 의해 결정된다. 지하철역, 공원, 학교 등과 가까울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고, 반대로 소음, 악취 등 각종 오염원과 가까울수록 그 가치는 내려간다. 전자가 긍정적 외부성이라면 후자는 부정적 외부성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이 외부성을 “공통적인 것의 유령”(228)으로 표현한다. 왜 유령인가?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인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세상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것”(388~389)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통적인 것은 유령으로 살아간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인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경제적 관계 외부에 있는 ‘외부경제’ 혹은 ‘외부성’으로 본다(388). 그러나 삶정치적 생산의 시대에 공통적인 것은 완전히 내부화된다. 예를 들어 한 동네가 ‘뜨는’ 과정을 보자.

한 동네가 주목받는 과정에는 복합적인 사회적 행위와 요소들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자산이나 지역 주민/예술가들의 활동, 그것에 주목하는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 그리고 방문객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하는 과정... 이들은 묘한 협력 관계—이 관계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는 논외로 하자—를 형성하며 해당 지역에 공통의 부를 축적한다. 그



런 점에서 이 사회적 관계는 하나의 공통재다. 이후의 과정은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목도가 높아진 동네의 건물과 토지는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그 결과 본래 활력을 주도했던 이들은 내쫓길 수밖에 없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잘 알려진 이 과정을 겪으면서 동네의 풍경은 투기자본의 주도 하에 획일화되고 활력을 잃는다. 이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삶정치적 생산에서 자본이 가진 모순이다. 공통적인 것을 구획하고 수탈하는 순간 그것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이처럼 한 동네에 가치가 축적되는 과정의 중심에는 복잡하게 뒤얽힌 사회적 관계로서의 공통재가 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마디를 이루는 지역 주민, 예술가, 미디어, 관광객 등의 활동은 차라리 삶 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TV를 보고 동네를 찾아가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일이 여가-삶 활동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부를 생산하는 사회적 관계의 일부를 이룬다는 점에서 노동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네의 주목도 증가 과정은 삶과 노동의 경계가 흐려지는 삶정치적 생산의 한 사례를, 사회적 공장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부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즉 이들은 공통재를 생산하는 노동을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상인의 경우 이들의 노동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풍경을 구성하는, 즉 공통재를 생산하는 노동이다. 물론 현실에서 이 두 가지 노동은 분리불가능하게 뒤얽혀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통의 부는 임대료 등 지대 형태로 지주에게 사적으로 전유된다. 지주의 이러한 행동은 사적소유권으로 보장받지만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한 이들의 집합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집합적 권리를 둘러싼 투쟁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젠트리피케이션 투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도시 공통재에 대한 인식은 집합적 권리를 위한 투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역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쫓겨날 때조차도 그들은 공통재를 창출하는 생산자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기 때

문이다.

이처럼 공동재를 집합적인 생산의 결과물로 파악하는 것은 도시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도시의 광장을 예로 살펴보면 광장은 일반적으로 공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그 공간의 관리는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 서울광장의 경우 한때 허가제로 운영되었고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도 서울시는 특정 행사를 거부하기도 했고,<sup>6)</sup> 광장의 사용료를 받으며, 자신의 행사를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광장이 시민들의 의사를 집합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광장에 대한 시정부의 통제는 시민들의 집회시위권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그 공간을 다시 전유<sup>7)</sup>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그 공간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광장이었던 그 공간을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한 것은 서울시지만, 한때 권력의 전시공간으로 기능했던 그곳을 시민들의 광장으로 만든 것은 촛불집회, 월드컵 응원 같은 사건이었다. 일련의 그 사건들은 광장을 국가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공동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시민들이 표출했던 행위들은, 함께 합성을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고 쓰레기를 줍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도 공동 공간을 생산하는 노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들이 광장을 전유할 권리를 갖는 것은 집회시위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서만이 아니라 광장의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할 때 권리를,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도시민들이 도시의 다양한 공적 공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공동재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으며 공동재의 관점에서 재

6) 2015년 3월 광장사용신청서를 내려고 했던 퀴어문화축제 측의 요청을 서울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서울시와 퀴어문화축제 측이 개막식을 서울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김상철, 「다시 묻는다, 서울 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미디어스》, 2015.4.3,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73>).

7) 전유는 르페브르가 말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는 핵심 권리 중 하나다(강현수, 2009).

인식되어야 한다. 이때 경제학자들이 외부성으로 파악하는 공동체를 삶의 정치적 생산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는 도시 생산자들의 권리 담론을 위해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생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페데리치는 네그리와 하트가 일상생활의 재생산 문제를 비껴간다고 비판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비물질적 공동체는 분명 어떤 부를 생산하지만 그 부가 네트워크에 속한 이들의 재생산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중세 숲 공유지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공동인들의 삶의 재생산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이 비물질 네트워크가 ‘연료의 저장고’이자 ‘식품저장고’이며 ‘약상자’였던 숲 공유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네트워크가 자급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물질적 기반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는 페데리치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빈 공간을 점거하여 공동체 생활을 꾸려나가는 스콧(squat)은 페데리치가 드는 주요한 사례다. 스콧은 그 활동과 구성원들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생산을 집합적으로 행하는 공통점이 있다. 점거한 공간을 매개로 스콧터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루는 집합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기초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콧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네트워크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타난다.<sup>8)</sup>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스콧 역시 권리 담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주요한 스콧으로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목동 예술인 회관을 점거한 예술가들의 <오아시스 프로젝트>와 서울시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을 점거한 노숙인들의 <더불어 사는 집>을 들 수 있다.<sup>9)</sup> 이들은 빈 공간을 점거하면서 각각 창작권과 주거권을 주요한 논리로 삼았다. 예술가들은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노숙인들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공간이 단지

8) 스콧의 사례와 의미에 대해서는 김강(2008)을 참고할 것.

9) <오아시스 프로젝트>와 <더불어 사는 집>의 활동에 대해서는 각각 오아시스프로젝트(2007)와 윤수종(2011)을 참고할 것. 김강(2008)도 두 사례를 다루고 있다.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점거를 통해 예술인 회관이 “창작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이자 “시민들이 예술과 즐겁게 어우러지며, 유쾌한 삶을 향유하는 곳”(오아시스프로젝트, 2007)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 사는 집>은 (노숙인에 의한)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하며 점거의 명분을 찾고자 했다. 즉 그들은 스스로가 공동체의 생산자임을 증명하려 했고 그것을 저작권과 주거권의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이들의 활동은 공동체가 권리 담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다시 정리하면 네그리와 하트의 비물질적 공동체는 그 자체로 재생산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페데리치가 재생산을 위해 주장하는 ‘물질적 기반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권리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두 스콧의 사례에서 그러한 접근은 공적 공간을 전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들과 노숙인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공동체의 생산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도시권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그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다.

공동체의 생산자는 예술가와 노숙인만이 아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주침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삶-노동자다. 우리가 삶을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공동체를 생산하며,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될 수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원고접수일: 2017년 5월 2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5일

최종원고접수일: 2017년 6월 17일

❖ Abstract

The commons in the modern city and the reproduction

Kwon, Beomchul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discussions from the common land in the history to the contemporary commons, and discusses how the commons is produced in the modern city and how alternative reproduction of life based on it are possible.

The discussion of Negri and Hardt shows well the mechanism by which immaterial commons is produced in a city that has become a social factory. These discussions can be used as a basis for asserting that producers of commons have the right to the city. Federici criticizes Negri and Hardt and emphasizes relatively the approach to the material base. Squat is a major example of Federici. However, in the case of two squats in Korea, artists and homeless people knew that they could become producers of commons, and based on that, they tried to realize the right to the city by themselves. In short, the immaterial commons of Negri and Hardt can provide the basis for the right to a 'material basis' that Federici argues for reproduction.

Keywords: commons, the common, reproduction, the right to the city, squat

참고문헌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제32호, 42~90쪽.
- 김 강. 2008. 『삶과 예술의 실험실 Squat』. 문화과학사.
- 김상철. 『다시 묻는다. 서울 팽장은 누구의 것인가?』. 《미디어스》, 2015.4.3.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73>.
- 라인보우, 피터.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정남영 옮김. 갈무리.
- 블리어, 데이비드.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옮김. 갈무리.
- 비르노, 삐올로. 2004. 『다중』. 김상운 옮김. 갈무리.
- 신지은. 2013. 『쓰레기와 도시 소비문화의 재구성』. 《현대사회과학연구》, 제17집, 17~38쪽.
- 오아시스프로젝트. 2007. 『점거메뉴얼북 Art of Squat』.
- 오스트롬, 엘리너.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 윤수중. 2011. 『노숙인 점거공동체 ‘더불어사는집’의 형성과 변화과정』. 《진보평론》, 제50호, 260~300쪽.
- 페데리치, 실비아. 2013a.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김민철 옮김. 갈무리.
- \_\_\_\_\_. 2013b. 『혁명의 영점』. 황성원 옮김. 갈무리.
- 하비, 데이비드. 2014. 『반란의 도시』.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 하트, 마이클. 2012. 『공통적인 것과 커뮤니티즘』. 『자본의 커뮤니티즘, 우리의 커뮤니티즘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위한 에세이』. 연구공간 L 엮음. 난장.
- 하트, 마이클·네그리, 안토니오. 2014. 『공통체』.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 \_\_\_\_\_. 2012. 『선언』. 조정환·유충현·김정연 옮김. 갈무리.
- \_\_\_\_\_. 2008. 『다중』.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세종서적.
- 한윤애. 2016.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 《공간과 사회》, 제26권 3호(통권 57호), 42~76쪽.
-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1~16쪽.
- Bauwens, Michel. “The new triarchy: the commons. enterprise. the state.” <https://blog.p2pfoundation.net/the-new-triarchy-the-commons-enterprise-the-State/2010/08>.
- Caffentzis, G. 2016. “commons.” *Keywords for Radicals: The Contested Vocabulary of Late-Capitalist Struggle*. Edited by Kelly Fritsch. Clare O'Connor. AK Thompson. AK Press, pp. 95~101.

- Caffentzis, G. & Federici, S. 2013. "Common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UPPING THE ANTI*, issue 15(september), pp. 83~91.
- Dalla Costa, Mariarosa. 1975. "Women and the Subversion of the Community." *The Power of Women and the Subversion of the Community*. edited by Mariarosa Dalla Costa and Selma James. Bristol, UK: Falling Wall Press.
- De Angelis, M. 2010. "On the Commons: A Public Interview with Massimo De Angelis and Stavros Stavrides." *An Architektur*, Journal #17. <http://www.e-flux.com/journal/17/67351/on-the-commons-a-public-interview-with-massimo-de-angelis-and-stavros-stavrides>.
- \_\_\_\_\_. 2007.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London: Pluto.
- Federici, S. 2016a. "Reproduction." *Keywords for Radicals: The Contested Vocabulary of Late-Capitalist Struggle*. Edited by Kelly Fritsch, Clare O'Connor, AK Thompson. AK Press. pp. 359~365.
- \_\_\_\_\_. 2016b. "Social Reproduction: Between the Wage and the Commons." Interview with Marina Sitrin. *ROAR Magazine*. <https://roarmag.org/magazine/social-reproduction-between-the-wage-and-the-commons>.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 Neeson, J. M. 1993. *Commoners: Common Right, Enclosure, and Social Change in England, 1700~18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58~59.
- Tronti, M. 1966. "Factory and Society." trans. Guio Jacinto. *Operai e Capitale*. <https://libcom.org/library/factory-society>.